

【서평】

중국소설의 이론비평에 관한 최근 연구 ——王汝梅의 『中國小說理論史』에 대한 書評을 곁하여

崔溶澈*

〈목 차〉

- 一. 머리말
- 二. 문학비평사에서의 소설이론비평
- 三. 독자적인 中國小說批評史
- 四. 王汝梅 등의 『中國小說理論史』

一. 머리말

중국고전소설의 이론과 비평에 관한 전문 연구서는 1980년 이전까지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물론 羅根澤이나 郭紹虞 등의 우수한 중국문학비평사에서도 대부분 詩文에 관한 이론비평이 주류를 이루었고 小說이나 戲曲부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통속문학인 소설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어 기왕에 정통문학으로 인정받는 장르에서만 장악하고 있던 비평사 분야에 소설과 희곡의 이론비평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明清代의 평점비평가를 중심으로 일부 이론비평이 소개되었으나 차츰 그 범위를 더하여 소설비평은 시문비평과 희곡비평에 이어 또 하나 비평문학계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단독 저술의 소설비평사는 처음에 『중국소설미학』(1982)의 이름으로 평점소설가 개별이론에 대한 분석이 나왔고 곧이어 소설이론의 개설서로서 나온 『고소설론개관』(1985), 선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비평가와

* 高麗大 中文科 教授

중심이론을 정리한 『중국소설이론비평사』(1989)와 『중국소설비평사략』(1990) 등이 잇달아 나와 지난 1980년대에 이 분야에 대해 학계에서 노력한 공력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중국문학비평사에서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던 이 분야의 공백을 메우게 되었다.

최근 “중국소설사총서”의 일환으로 나온 王汝梅 등의 『중국소설이론사』는 역사발전의 시기별로 소설이론의 변천사를 정리한 책이지만 최신의 연구성과를 수용하고 또한 저자 자신의 연구분야인 『금병매』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한 역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최근 이 新著를 입수함에 따라 지난 20년간 중국소설 이론비평계의 연구성과를 개괄하고 최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를 간략히 정리 보고한다.

二. 문학비평사에서의 소설이론비평

1981년 敏澤의 『중국문학이론비평사』(人民文學出版社)에서는 明清時期에 李卓吾의 『수호전』 평론과 평점, 金聖嘆의 『수호전』 평점, 舊民主主義革命時期(근대시기)에 晚淸의 개량주의소설이론, 王國維 등의 『홍루몽』의 비평 등에 대해 언급하여 비로소 소설비평에 대한 내용이 비평사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온 王運熙·顧易生주편의 『중국문학비평사』(上海古籍出版社)는 文革이전의 비평사와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과거에 시문위주의 비평사 기술을 지양하여 시문비평이외에 희곡과 소설 분야에 대폭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명대문학비평사 전체를 「시문비평」, 「희곡비평」, 「소설비평」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비평에 관한 첫 번째 기술은 金元代시기에 나오며, 역대 소설의 개념에 대해 언급한 「소설비평의 맹아」에 대해 먼저 기술하고 구체적인 저술로는 羅樺의 『醉翁談錄』을 소개하고 있다. 이후 「명

대의 소설비평, 「청대전기·중기의 소설비평」, 「근대의 소설이론비평」 등으로 분산하여 상당한 편폭으로 소개하고 있다.

1987년 黃保眞·成復旺·蔡鍾翔 공저의 『중국문학이론사』(北京出版社)에서도 金元代에 「회곡·소설이론의 맹아」를 기술하기 시작하지만 전체적인 체제면에서는 앞서의 『중국문학비평사』에 비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 하다. 명대에는 明初, 明中期, 明末 등으로 세분화하여 회곡·소설의 이론을 간략히 검토하였으며, 청대에는 약간 체제를 달리하여 세부적인 시기구분 없이 회곡·소설의 이론가로 8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소설비평가는 金聖嘆, 毛宗崗, 張竹坡, 脂硯齋 등이다. 근대시기에는 梁啓超 정도가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설비평은 기타 시문비평에 비해 극히 부분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이어서 여전히 구색을 맞추기 위한 안배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상해고적출판사의 『중국문학비평사』는 각 시대별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단행본으로 엮어 총 7권의 『中國文學批評通史』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소설비평에 대한 내용도 대폭 확대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鄒國平 등이 엮은 『청대문학비평사』(1995)에서는 기존의 김성단, 지연재 등의 평점이 이론을 중심으로 다시 「才子佳人小說理論」 등을 추가하였고, 黃霖이 엮은 『근대문학비평사』(1993)에서는 기존의 梁啓超, 吳沃堯, 王國維 등의 소설론 이외에도 당시 전통적 비평방식으로 활동했던 王希廉, 陳其泰, 哈斯寶, 文龍 등의 평점과 俞樾의 협의소설론, 韓邦慶의 협사소설론 등의 내용이 추가 보충되었다.

따라서 중국소설의 이론비평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연구대상과 기술의 내용이 부단히 확장,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上海古籍出版社의 『중국문학비평통사』 시리즈에서 대대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三. 독자적인 中國小說批評史

1982년 소설미학의 입장에서 명청대 소설평점을 구체적으로 다룬 『中國小說美學』(葉朗, 북경대학출판사)은 이 분야의 첫 번째 저술로 기록될 것이다. 당시 저자는 소설의 이론과 비평에 관한 내용을 모두 소설미학으로 규정하면서 명대의 李卓吾, 葉晝, 馮夢龍, 청대의 金聖嘆, 毛宗崗, 張竹坡, 脂硯齋 등의 소설평점 그리고 근대의 梁啓超의 소설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1985년 黃霖이 쓴 『고소설론개관』(上海文藝出版社)은 저자가 비평사 저술 작업에 동참하였고 또 『중국역대소설논저선』 등을 편찬한 경험을 살려 고대 소설의 이론을 총 16개 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羅燁, 蔣大器, 李卓吾 등의 주요 소설비평가의 이론과 虛實論, 傳神論 등의 기본적인 소설론을 소개하고 있는 개설서다.

1988년 王先霽·周偉民이 공동으로 편찬한 『명청소설이론비평사』(花城出版社)는 명실상부한 소설의 시대로 지칭되는 명청대로 기술의 대상을 한정 한 斷代비평사라고 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 보면 다른 소설비평사에서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명청대의 이론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剪燈新話』의 序文을 통해본 당시 문인층의 소설관을 시작으로 청말 王國維의 『홍루몽평론』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1989년 陳謙豫가 편찬한 『중국소설이론비평사』(華東師範大學出版社)는 이론비평사의 전시기를 맹아·발전시기(선진·한위), 성숙시기(수당·송원), 번영시기(명대·청대) 및 정신시기(근대 이후)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명청대와 근대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비평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평점가인 脂硯齋와는 별도로 『홍루몽』의 작가 曹雪芹의 창작사상과 소설이론비평도 다루고 있다.

1990년 方正耀에 의해 저술된 『중국소설비평사략』(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은 시대구분에서는 제1편에서 선진에서 송원까지, 제2편에서 명대, 제3편에

서 청대, 제4편에서 만청을 다루어 시대발전의 4분기설을 채용하고 있지만, 표제에서는 기존의 비평가와 작품명을 직접 드러내는 방식을 전면 지양하여 「몽롱한 소설관념」, 「소설관의 형성」, 「소설관의 분기」, 「소설관의 돌파」 등의 제목으로 각 시대별 특징을 드러내는 등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方正耀의 책은 국내에서 홍상훈에 의해 번역 출판되었음)

四. 王汝梅 등의 『中國小說理論史』

2001년에 나온 王汝梅·張羽 공저 『중국소설이론사』는 浙江古籍出版社에서 기획하여 수 년째 간행하고 있는 “중국소설사총서”의 일환으로 저술되었다. 중국소설사총서는 네 가지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대별로 한위육조, 수당오대, 송원, 명대, 청대, 만청소설사 등 5종이 있고, 소설문체별로 필기, 전기, 화본, 장회소설사 등 4종이 있으며, 유형별로는 역사, 신괴, 세정, 협의공안소설사 등 4종이 포함되었다. 본 『중국소설이론사』는 『중국소설에술사』, 『중국소설문화사』, 『중국소설연구사』 등 소설을 둘러싼 외곽 분야의 연구에 속하는 것이다. 본 총서는 모두 18종으로 이뤄진 방대한 연구저작물로서 지난 수년동안 중국소설학계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王汝梅 등의 『중국소설이론사』는 기왕에 혼란을 거듭해 오던 중국의 소설관에 대해 비교적 명쾌한 분석을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導論에서 저자는 중국 고대에 두 가지의 소설관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은 역사가의 소설관과 문학가의 소설관이라고 하였다. 前者는 허구를 배격하고 사실을 숭상하였으며 後者는 기이함을 좋아하고 허와 실을 동시에 인정하였다고 지적함으로써 오랫동안 혼란스럽게만 느껴지던 중국 고대의 소설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가하여 새로운 논의의 물꼬를 텃다. 동아시아 소설사에서 언제나 인용되는 『漢書·藝文志』에서의 소설은 바로 역사가의 사실 숭상에 근거한 소설관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班固가 말하는 소설이란 孔子가 말하는 小道이

며, 이는 유가나 도가에서 말하는 大道와 상대가 되지 않는 일반 백성들의 통속적인 작은 도술일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班固의 小説은 장자와 순자에서 말하는 小説과 小家珍說 등과 같은 종류로서 『예문지』에 기록된 소설가의 작품은 모두 이치를 밝히는 책이지 이야기를 꾸며낸 서사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저자는 문학가의 소설관이 별도로 존재했음을 강조하고, 『장자』 속에 거의 소설적 수준을 갖춘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훗날 寓言을 단편소설의 대칭으로 부른 적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莊子이후에도 漢代에 司馬遷과 劉向 등이 모두 역사가이면서 문학가인 이중적 신분이었음을 지적하고 王充의 『論衡』에서 기괴함과 허망함을 그려내는 글을 인정하고 속인들이 호기심을 갖는 일은 이상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허구의 일을 꾸미는 소설을 긍정하는 소설관이 형성된 것이며 이는 應劭의 『風俗通』이나 劉勰의 『文心雕龍』 등에서도 발견된다고 밝혔다. 어쨌든 두가지의 소설관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하는 저자의 견해는 기존의 혼란스런 논의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중국소설이론사를 네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첫 단계는 춘추전국시대에서 당나라 초기까지로서 역사서나 제자서와 공존하였던 소설관의 시대로 보았고, 둘째 단계는 당나라 중엽부터 명나라 초기까지로 소설이론이 다양하게 생성 발전한 시기로 보았으며, 셋째 단계는 명대 중엽부터 청대 중엽까지로 소설이론의 성숙과 번영의 시기로 규정되었고 마지막 넷째 단계는 阿片 전쟁이후 五四운동 직전까지 이른바 근대시기로서 소설이론이 전통에서 현대화로 전환한 시기로 보았다.

著者は 기존의 소설비평사와 구별되는 독특한 분야를 추가로 보충하였는데 당대에 白居易, 韓愈, 柳宗元의 소설론을 신설하였고 명대에 『전등신화』, 『전등여화』의 서문과 발문에 나타난 傳奇소설론을 보충하였으며 명말 嘉靖·萬曆연간의 錢希言의 虛實論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청대에는 『금병매』평론을 둘러싼 稔情소설론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艷情小説論의 신설은 기존 이론비평사의 공백을 보충하는 의의가 있으며 동시에 근년에 러시아에서 발굴된 최초의 稔情소설 『姑妄言』의 評語에 대하여 처음

으로 상세히 언급한 점도 새로운 시도라고 하겠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중국소설사(즉 魯迅의 『중국소설사략』)와 중국소설비평사(方正耀의 『중국소설비평사략』)가 각각 한 종씩만 번역 소개되어 있을 뿐이므로 앞으로 다양한 중국소설사와 이론비평사의 번역은 우리 학계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차제에 최근 간행된 『중국소설이론사』를 비롯하여 지난 20년간의 중국소설이론비평사에 관한 연구 저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았다.